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과 대응방안

정정숙 (총신대 교육대학원장)

서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 상황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성찰을 요구하며, 새로운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독교 교육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개념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임의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주장하는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¹⁾

기독교 교육은 단순한 가르침의 차원에서 고찰될 것이 아니라 신학과 교육학이라는 복합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추적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개념은 신학사상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이해부터 해야 한다.²⁾

기독교 교육의 개념은 신학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비(C. B. Eavey)의 말처럼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³⁾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만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⁴⁾

기독교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단어 앞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두 단어가 가진 특성을 규명해야 하고, 두 단어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⁵⁾

‘기독교 교육’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46년이고⁶⁾ 활성화된 것은 1960년대 초엽이다. 그 이전에는 ‘종교 교육’이라고 불렀는데, 이 어휘는 기독교적 전통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동양에서는 올바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⁷⁾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요한 흐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교육이란 신학이 체계화한 기독교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적용, 해석, 전달, 가르치는 행동과학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 교육은 신학의 영역에 충실해야 하며, 교육의 주된 장을 교회로 본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협의의 기독교 교육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둘째,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에 관한 교육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크리스천 신앙 공동체에 관한 교육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크리스천 신앙 공동체에 관한 교육 혹은 크리스천 신앙 공동체에 의한 교육을 말하며 교육의 장으로는 교회, 가정, 학교, 사회 등이다.

셋째, 기독교 교육이란 중생한 신앙인이 총체적, 전체적, 신앙 고백적 삶의 형태로서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Christian world view)과 인생관을 가지고 교육 현상을 보는 것으로서 교육의 장은 가정, 교회, 학교, 사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학의 가능성은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거듭난 신앙 인격을 갖도록 돕고, 날마다 말씀과 성경의 조명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 가운데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⁸⁾ 기독교 교육이란 진리를

1) Howard Hendricks, in Foreword to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by Roy B. Zuck, rev. ed. (Chicago: Moody Press, 1972), p. 4.

2) 정정숙, 『기독교 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0), p. 20.

3)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p. 11.

4) Paul H. Vieth, *The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St. Louis: Bethany Press, 1947), p. 44.

5) Frank E. Gaebelin, *Christian Education in a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p. 13.

6) Paul H. Vieth, *op.cit.*, p. 52.

7) 기독교 교육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교육, 교회 교육, 교회학교 교육, 교리문답 교육, 기독교 종교 교육, 기독교 교육 등으로 불려 왔다.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여 육성해 줌으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기독교 교육의 대상은 인간이고, 기독교 교육의 교사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소명 받은 교사이며 기독교 교육의 장은 가정,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이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형성하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재능과 소질을 발견해서 육성함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구속받은 성숙한 크리스천 인격(redemptive mature Christian personality)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목표는 크리스천의 성품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아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다.⁹⁾

이렇게 기독교 교육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크리스천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엡 4:16)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 사명(창 1:28)을 감당하는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기독교 교육의 현실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1. 이념의 상실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은 이념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안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 기독교 가치체계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오는 갈등과 위기가 기독교 교육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념의 상실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으나 세속화 현상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세속화 현상

미국의 개혁주의 교육철학자인 게이블라이엔(Frank E. Gaebelien)은 “현대 종교사상의 비평”(Review of Current Religious Thought)이라는 글에서 세속화를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럴듯한 방법”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세속주의’(secularism)를 ‘무신론’과 동일시하고 있다.¹¹⁾

그는 또한 미국의 학교 교육의 세속화를 염려하면서 “공립학교의 정직한 평가는 반종교적(anti-religious)인 세속주의 철학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²⁾고 주장했다. 모리슨(C. C. Morrison)도 역시 “종교가 없는 공립학교 교육은 교회가 공립학교를 기독교화 시킬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빠르게 세속적인 지성(secular mentality)을 만들어 내고 있다”¹³⁾고 말하며 공립학교의 세속화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세속화는 결혼과 가정, 노동과 경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세속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이렇게 현대 교육이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무신론과 세속주의적 교육철학에 근거를

8) 정정숙, *op.cit.*, pp. 23~24.

9) *Ibid.*, p. 34.

10) *Ibid.*

11) Frank E. Gaebelien, "Review of Current Religious Thought", *Christian Today* IV(November 9, 1959), p. 43.

12) Frank E. Gaebelien, *Christian Education in a Democracy*, *op. cit.*, p. 86.

13) C. C. Morrison, "The Inner Citadel of Democracy", *The Christian Century*, LVIII(May 4, 1941), p. 652.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궁극적 실재와 확실한 지식, 그리고 본질적 가치의 탐구를 주요 과제로 삼아 왔고,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학설들은 교육 원리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었다.¹⁴⁾ 교육철학에 따라서 교육 목적이 달라지고 교육 행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목적 지향적 과정이다.¹⁵⁾

그러므로 교육철학이 어떠한 형태로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철학도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기독교 교육철학의 중심에는 성경 신학이 자리잡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은 각기 독자적인 기독교 교육철학의 정립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특수한 집단의 특정한 견해만 옹호하는 파벌주의(factionalism)적 경향이 생겼고, 또한 기독교 교육철학을 세속적인 견해와 연합시키려는 절충주의라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¹⁶⁾

이러한 경향들에 의하여 기독교 교육철학은 포괄적인 기독교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무시함으로써 완전히 제한된 견해들의 다양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신앙과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기독교 교육철학의 이론 정립에 미비함을 보여 주었다.¹⁷⁾

그래서 허버트 번(Herbert W. Byrne)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독교 교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 그의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떠한 노력도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 교육철학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노력은 기독교적 세속주의 교육으로 묘사되어야 할 것이며 기독교 교육의 다른 영역에서도 성경 중심의 교육과정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¹⁸⁾

이러한 지적은 교육사상의 다양한 발달이 도모된 80년대에도 적용되고 있다. 20세기의 세속주의적 사상 체계 가운데 하나인 실용주의가 오늘의 교육 사조를 석권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¹⁹⁾ 이와 같은 세속주의적 경향들은 세속주의적 교육철학의 영향인 동시에 신학의 세속화와 직결된다.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통해서 실용주의 교육철학이 기독교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연구되어 왔고 이것은 신적 메시지의 전달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개념에 따른 데서 연유한다. 세속화와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열성적인 복음화가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

80년대와 90년대에 논의된 사상의 특성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어원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다. 일반적으로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그의 대표작 『역사의 연구』(*Study of History*)에서 서구의 역사를 암흑기, 중세기, 모던, 포스트

14) 철학적 입장들이 명시적(明示的)으로나 제안적으로 교육원리를 형성해 왔다.

15) 목적지향적 과정으로서의 교육 행위는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R. C. Peters는 교육의 세 가지 준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①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의 전달을 내포한다. ②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어떤 행위의 인지적 측면을 내포한다. ③ 교육은 피교육자의 의지와 자발성을 무시한 전달방식을 배제한다. Cf. R. C. Peters,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65), p. 45.

16) 이들은 기독교적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무시한 데서 생겨난 것이다.

17) Edwin H. Rian, *Christian and American Education* (St. Antonio : Baylor Co., 1949), p. 235.

18) Herbert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Milford : Mott Media Press, 1981), pp. 176-177.

19) Cf. Norman E. Harper, *Making Disciples : The Challenge of the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Memphis :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20)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p. 19.

모던의 네 시기로 구분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¹⁾ 토인비는 이 책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자포자기, 도피주의, 표류라고 보았으며, 또한 그 시대는 언어, 관습, 종교 등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것이나 무차별 수용하는 초점 없는 혼합주의와 무비판적 관용의 시대라고 하였다.²²⁾

이러한 사상적 현상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와서 한국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문화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 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대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폭넓은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보화,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 등의 과학의 발달과 뉴에이지와 신과학 운동 등으로 특이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상의 주요형태는 첫째, 통일성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의 해체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신앙하던 기독교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의 영향이 확산된 점이다. 종교다원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여러 종교들에 의해 그리고 우주적 접근으로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²³⁾

둘째, 상대주의이다. 절대적 가치관의 붕괴는 모든 가치의 상대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탈(脫) 중심주의적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삶의 양식이 혼재하는 현상들이다.²⁴⁾

셋째, 권위체계가 붕괴된 '대중사회'이다. 이 변화는 문화생활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최고의 가치와 예술만을 문화로 정의했던 고전적 문화의 개념이 쇠퇴하고 대중문화가 부각되었다. 대중문화의 부상으 이른바 '신세대'의 출현과 연결되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고개를 들게 되었다.²⁵⁾

이러한 사상적 혼돈은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기독교 교육에도 정체성의 혼돈이라는 문제를 배태케 하였다.

이념의 상실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것이 여러 분야에서 혼돈을 가져오는데 기독교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다.

2. 교육의 장(場) 붕괴

위에서 교육의 장이 가정, 교회, 학교와 사회라고 지적하였다.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교육의 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장의 붕괴 현상을 단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1) 가정교육의 붕괴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가정해체로 인한 교육의 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와²⁶⁾ 자녀 유기 등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²⁷⁾

가정의 해체 현상은 교육의 붕괴로 직결된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체될 때에 여기서 자녀들의 교육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²⁸⁾

이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혼의 제물이 된 자녀 문제이다. 이혼 때문에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반감, 죄의식 등이 많고 이러한 자녀들이 가지는 연령별 반응은 다음과 같다.²⁹⁾

① 2~5세 유아는 발달의 퇴행, 의존성, 대소변 못 가리기 등의 태도를 보이며 아동 특유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

21) Arnold Toynbee, *Study of Hist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p. 18.

22) *Ibid.*

23) 말 고치 편, 『포스트모던 시대 속의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 문석호 역, (화성: 신앙과 지성, 2001), p. 234.

24) 신국원, *op. cit.*, p. 112.

25) *Ibid.*, pp. 117-123. 또 마크 놀·데이비드 웰즈 편, 『포스트모던 세계에서의 신학과 신앙』, 이승구 역(서울: 엠마오, 1994)을 참조하라. 전광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을 첫째, 해체주의, 둘째, 비합리주의 내지 탈합리주의, 셋째, 상대성 혹은 다양성, 넷째, 탈인간중심주의 내지 주체의 상실, 다섯째, 탈정치화와 탈역사화로 규정하였다.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서울: CUP, 1998), pp. 93-100.

26) 김남식, “이혼의 사회적 현상과 그 대응”, 상담과 선교, 제6권 4집, 1998년 겨울호, p. 43.

27) *Ibid.*, p. 45.

28) 정정숙, “이혼의 위기 상담”, 상담과 선교, 제6권 4집, 1998년 겨울호, p. 60.

29) 박원희, “결혼가정 학생의 성격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9.

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② 6~8세 아동도 부모의 이혼이 자기 탓이라고 책임을 느끼며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이들은 부모에 의하여 자신이 거부되었다고 느끼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연령층이 가장 위험하며 가장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반면에 이들은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다.

③ 9~12세 아동은 이혼을 제의했다고 생각되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그것이 학교에서 폭발할 때에는 친구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④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한 분노, 슬픔, 부끄러움 등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서 청소년은 부모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 각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기도 한다.

(2) 교회교육의 붕괴

한국 교회는 성인목회 중심으로 굳어져서 교회교육은 하나의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 또한 경제적 성장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성장지향, 성공지향적 패턴이 형성되고, 교회의 성장에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교회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성인교육 역시 참된 신앙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을 정도이다.³⁰⁾

철저한 교육이 없이 참된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교회에서의 교육은 외면되고 교회는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학입시라는 중요한 장벽을 앞에 두고 예배나 교회교육보다 입시준비가 우선시 되었다. 또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교회의 교육적 기능이 쇠퇴되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의 열 가지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¹⁾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	
1	부모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 풍요로 인한 신앙생활에 대한 무관심
2	대중매체의 유혹
3	입시 위주의 시간 활용
4	학업점수에 지배당하는 삶
5	기성세대가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은 비디오방 등 유흥시설의 유혹
6	희망, 위안보다 ‘하지 마라’는 억압의 장소로 각인된 교회 이미지
7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외면한 교회의 19세기적 선교방식
8	교사들의 세대간, 문화적 격차로 인한 이중교
9	열악한 교회교육 환경
10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방법의 부재

이러한 교회교육의 붕괴는 교회의 기능을 위축시켰고, 세속주의의 물줄기 앞에 속수무책의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3) 학교교육의 붕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은 학교교육의 붕괴라는 비극적 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현대 사회는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영향력 아래서 유지되어 간다. 일찍이 자크 엘룰(Jaque Ellul)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미래에는 그 도를 더해 갈 것이며 아무도 이 기술 지배의 문명을 벗어나거나 정지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³²⁾

이러한 예측은 오늘날 도처에서 입증되고 있다. 기술 사회가 가지고 오는 심각한 문제들은 전통적 가치나 문화들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과거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기독교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는 엄청난 정보가 개방되는 문화를 불러온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축적하며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세기의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된

30) 안환균, 『르포·기독교 문화가 위태롭다』 (서울: 규장, 1999), p. 147.

31) 공주교육대 구정화 교수 정리 자료를 *Ibid.*, p. 149에서 재인용.

32) Jaque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tr. John Wilkinson (New York : Vantage Books, 1964), p. 35.

다. 따라서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정보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에도 구체화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실 중심의 교육 방법이 파괴되고 멀티미디어를 통한 이른바 ‘열린교육’ 또는 ‘다양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술 사회가 가져다주는 기능은 효율성의 증대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도 학문의 영역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육 제도가 붕괴되고, 다양한 교육 제도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동체의 위상에 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정보의 보편적 확대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던 권위 구조의 정당성을 회의하게 만들고, 교육 공동체인 학교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4) 사회교육의 붕괴

현대 사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가치관의 붕괴이다. 전통적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대치되어야 하는데 그 과도기적 혼돈을 겪고 있다.

가치관의 과도기적 혼돈은 사람들의 삶에 갈등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갈등은 자신의 내적 상태에서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기도 하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생기기도 한다.³³⁾

오늘의 신세대들은 비교적 풍요로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러기에 경제적 고통에 대한 체감이 기성세대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다. 또 핵가족 체제에서 성장하였기에 공동체적 삶보다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부모의 과잉 보호와 폐쇄적 공간에서 자랐기에 남을 배려하는 면에서 기성세대와 다를 수 있다.

사회의 가치관 붕괴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맞물려서 사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윤리의 실종이다.

현대 사회의 교육은 이렇게 교육의 장(場)의 붕괴라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3. 방향성의 혼미

현대 기독교 교육의 현실 가운데 하나는 방향성의 혼미이다. 이것은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방향성의 혼미는 여러 갈래로 논의할 수 있으나 중요한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한다.

(1) 사상적 영향

현대 기독교 교육의 흐름 뒤에는 사상적 배경이 존재한다. 한 시대의 사상이 문화나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기독교 교육의 경우에는 신학의 영향을 받는다.³⁴⁾

현대신학의 사상적 흐름은 매우 다양하며 여기에 연관된 기독교 교육도 다양한 신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신학적 입장이나 신학적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신학의 유형이 변함에 따라서 ‘기독교의 메시지’와 ‘인간의 경험’에 대하여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다.³⁵⁾

신학의 혼돈이 기독교 교육의 혼돈으로 이어지고, 다시 방향성의 혼미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 교육의 현실이다.

(2) 상업주의의 영향

현대사회는 대중문화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오락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대중문화의 특성은 ‘즉시성’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즐길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향이 기독교 교육에도 침투되어 상업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것은 성공 또는 성장 위주의 목회 경향과 연결되어 세속주의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³⁶⁾

33) 이성호,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 문이당, 1995), p. 69.

34) 정정숙, *op. cit.*, pp. 74ff.

35) *Ibid.*, p. 78.

36) 문화에도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국원, “대중문화의 현실과 대안”,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

상업화의 동력은 돈이며 재정적 이해관계인데, 교육 부분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은 ‘소비계층’이기에 별다른 경제적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상업주의적 안목에서 보면 이들을 위한 교육은 끊임없는 소비행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기독교 교육의 현실을 이념의 상실, 교육의 장의 붕괴, 방향성의 혼미라는 원리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II. 기독교 교육의 원리

암울한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과 방안들이 있으나 성경적 원리에 따라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조명하려고 한다.

1. 기독교 교육과 성경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을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은 자체적 재충전이 가능하다. 또 교회의 사역이 활력이 넘치려면 올바른 신학을 근거로 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신학은 궁극적이고도 확실하며 계시된 진리를 실존적 토대로 하여 생겨난다.³⁷⁾

신학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학 사상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의 기본적 전제 조건은 성경의 권위에 근거를 둔다.³⁸⁾ 교회의 교육적 기능은 성경에서 비롯된다. 사라 리틀(Sara Little)의 표현처럼 “계시된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주인 아닌 종의 역할”을 기독교 교육이 하게 된다.³⁹⁾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계속하여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의 근본 정신인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그 자체를 가르쳐야 한다. 말씀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야 참다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육은 진리의 원천이며 확고부동한 판단 기준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칼 헨리(Carl F. H. Henry)의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⁴⁰⁾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구약적 배경에 대한 연대기적 연구들을 볼 수 있으며⁴¹⁾, 히브리 역사의 거의 대부분인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와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체화된 존재였다.

구약에서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러 개 있다. ‘교육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하낙’(hanak)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근에서 나왔다. 구약에서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라마쓰’(Lamath)인데 ‘자극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토라(Torah)는 ‘쏘다’, ‘내던지다’, ‘그물을 드리우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지시 사항으로 생각한다.

구약 교육의 특성은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민족 해방’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즉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

할 수 없다」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pp. 71ff를 참조하라.

37) 정정숙, 『기독교 교육학』, *op. cit.*, pp. 63ff.

38) Werner Graendorf 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81), p. 13.

39) Sara Little, *The Role of the Bible in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John Knox, 1961), p. 175.

40) Carl F. H. Henry, “Restoring the Whole Word”, in *The Religious Education We Need*, ed. James M. Lee (Mishawaka, IN: Religious Education, 1977), p. 65.

41)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William Barclay, *Educational Israel of the Ancient World* (Grand Rapids: Baker, 1974), 한글판은 유재덕 역, 『고대 세계의 교육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Lewis Joseph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53), 한글판은 이숙종 역, 『기독교 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44) 등이 있다.

므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교육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신다.⁴²⁾ 언약 사상이야말로 구약 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이스라엘을 유지시키는 역사의 고리 역할을 한다.

기독교 교육은 구약적 바탕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

신약의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된다. 교사로서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선포하셨으며⁴³⁾, 모범적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당시의 회당 교육을 받았고(눅 4:16), 회당 교육의 특성을 활용하셨다.⁴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생하게 구체화된 존재이며(요 14:6), 그가 가르치는 내용 바로 그 자체였다.⁴⁵⁾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으며, 가르치는 교수법도 탁월했다.

복음서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육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신약의 교육내용은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여, 둘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는 것이며, 셋째, 신앙 가운데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의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해 왔다. 이렇게 기독교 교육은 그 원리와 방법을 기독교라는 본질 속에서 추구해야 한다. 폴 비에스(Paul Vieth)는 “기독교 교육은 그것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방법론을 오직 기독교의 본질 속에서만 찾을 수 있어야 한다”⁴⁶⁾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오히려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심리학에 정착하려고 한다고 비에스는 비판하고 있다.⁴⁷⁾

진리에 대한 개념이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교육의 원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2. 기독교 교육과 은혜언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9)는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집약된다. 신·구약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출 6:7, 고후 6:16-18, 계 21:3)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딤후 2:5), 이 언약에 믿는 자의 자녀들이 참여한다(행 2:39).

은혜언약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의 지위 문제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어떤 학자들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중생할 것을 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⁴⁸⁾

42)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Willem A. Van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8)을 참조하라.

43) Elmer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Grand Rapids: Baker, 1975), p. 16.

44) Clifford A. Willson, *Jesus the Master Teacher* (Grand Rapids: Baker, 1974), p. 23.

45) J. M. Price, *Jesus the Teacher* (Nashville: Broadman, 1956), p. 3.

46) Paul H. Vieth, *The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St. Louis: Bethany, 1947), p. 44.

47) *Ibid.*

48) 이러한 가정적 중생(presumptive regeneration)개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가 올 때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쁨으로 뛰어 논 세례요한을 인용한다(눅 1:15, 41, 44). 그러나 이 인용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인용이 되지 못한다. 가정적 중생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예는 Lewis B. Shenck, *The Presbyterian Doctrine of Children in the Covena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0)이다.

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노만 하퍼(Norman E. Harper)는 언약약속(covenant promise)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⁴⁹⁾

은혜언약의 상속자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이다. 성경은 언약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위임되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는 말씀에서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양’(nurture)과 ‘훈계’(admonition)라는 단어이다. ‘교양’이란 말은 성숙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지도와 가르침, 교훈, 훈련 나아가 징계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한다는 뜻이다. ‘훈계’란 교정을 위한 훈계의 말이라는 뜻이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지도와 교훈과 의의 교정을 의미한다.⁵⁰⁾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언약의 자녀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롬 11:36)고 하신 말씀에서처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창 1:28)에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 중심의 변혁주의적 문화형성이 필요하다.⁵¹⁾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셋째, 자녀들에게 알맞은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다양한 발달 단계가 있다.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잠언 22:6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였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방식에 따라 아이를 키우라”(Train up a child according to his way)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의 방식’(his way)이란 어린이의 본성을 의미한다.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라는 뜻이다.

3.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 철학

교육학과 철학의 관계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교육학에 있어서 교육철학은 하나의 독립적 학문 영역으로 자리잡았고 교육의 개념 정의나 본질 규명 그리고 교육의 목적과 내용 등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른 신학의 원리와 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즉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을 준거틀로 삼아야 하고 성경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해석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육철학을 단순한 교육학의 한 분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학의 바탕에서 나온 관점임을 이해해야 한다.⁵²⁾

신학적 기초 위에 기독교 교육철학을 세운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 위에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기독교 교육철학의 산물이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가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교육은 전적으로 기독교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직 기독교를 위하여 존재한다.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독교 교육철학의 중심이시다.⁵³⁾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곳에 존재하시는 실재(reality)이시기 때문이다. 진실한 기독교 교육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수행되는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이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진리의 드러

49) Norman E. Harper, *op. cit.*, p. 42.

50) *Ibid.*, p. 46.

51) 문화사명과 변혁주의 문화론에 대해서는 김남식, *기독교에서 본 문화*(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72)를 참조하라.

52) 프랭크 E. 게이블러이엔, “기독교 교육철학”, 기독교 교육학개론, J. 에드워드 헤익스 편, 정정숙 역(서울: 성광문화사, 1979), p. 45.

53) C. B. 이비,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목표”, *Ibid.*, p. 62.

남이 진리의 깊은 계시적 기초 위에 있다면 크리스천 교사와 학생은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리의 참다운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진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성의 위치를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다.⁵⁴⁾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철학과 통합되어야 한다. 프랭크 게이블라이엔(Frank Gaebelien)은 기독교 교육에서 진리 구현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 교육은 오직 크리스천 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크리스천 교사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물을 분석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을 감당하신 것 같이 크리스천 교사도 이러한 삼중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⁵⁵⁾

둘째, 기독교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은 성경이다. 모든 교육과정의 출발점은 반드시 성경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과목을 가르칠 때 성경의 빛으로 조명하고 해석하여야 하며, 사람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기독교 세계관과 통합하여야 한다. 신앙과 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각 과목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하여 신앙과 교육의 일치를 강조해야 한다.

넷째, 기독교 교육은 성경적 의미에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교육의 탁월성을 학적 수준의 성취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에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교육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 지라”고 하는 에스겔 18장 4절 말씀대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배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⁵⁶⁾

III. 우리의 대응 방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바른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우리들의 대응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1.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

기독교 교육 현실에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바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앙의 다원화, 사회의 세속화 그리고 교육의 다양화 현상이 심화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기독교 세계관의 확산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틀에서 출발하고 유지된다.

세계관은 한 집단이 사물을 판단하는 기본 가설(basic assumption)이다. 이 가설에 따라서 모든 판단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계관은 개인이나 한 집단의 인식 및 신념 체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정신구조로서 사람의 가치와 행동을 일으키고 조정하는 바탕이 되는 요소라고 규정한다.⁵⁷⁾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사랑, 영혼, 결혼, 학문, 사업 등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제로 그가 가진 세계관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세계관에 의해서 살아간다. 세계관은 단순히 삶에 대한 시각일 뿐 아니라 삶을 위한 시각이 된다.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기준을 결정하기도 하고, 세계관에 의해서 무엇이 더욱 가치 있고 무가치한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세계관은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며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54) 프랭크 E. 게이블라이엔, “기독교 교육철학”, *Ibid.*, pp. 55-58.

55) Norman E. Harper, *op. cit.*, pp. 127-134.

56) 프랭크 E. 게이블라이엔, *op. cit.*, p. 58.

57) W. Warren Wager, *World View : A Study of Comparative History* (New York : The Dryden Press, 1977), p. 5. 세계관이란, ‘철학’과 구별되며, ‘삶에 관한 관점’ 또는 ‘신앙고백적 비전’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 틀”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 ‘사물들’이란 단어이며, 둘째로 ‘신념’, 셋째로 ‘기본적’, 넷째로 ‘틀’(framework)이란 개념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도 제시한다.⁵⁸⁾

현대 서양 문명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 또는 기술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면 인간만이 사고의 표준이 된다. 이런 세계관은 점차로 유물주의적, 진화론적,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변해 간다.⁵⁹⁾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은 영원 자존자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그가 우리를 구속하였으며 그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가르친다.

세계관이란 말은 19세기 이후에 와서 서구 대학 사회에 널리 통용되었고 최근 북아메리카의 기독교 사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⁶⁰⁾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와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어진 용어이다. 세계관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양승훈은 올바른 세계관이 갖는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⁶¹⁾ 첫째, 올바른 세계관은 통일적인 삶을 설계한다. 삶의 통일성은 곧 생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인생의 목적은 통일적인 삶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둘째, 올바른 세계관이 역동적인 삶을 가능케 하며, 그런 삶은 올바른 생의 의미가 확립될 때 가능하다. 셋째, 올바른 세계관은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는 특히 세계관은 특정한 과제를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삶의 전반적인 목적을 부여하며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바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확산시키며, 이것을 교육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의 각 분야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하나의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기독교 교육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2. 통합적 교육의 실시

한국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이 나라의 여명기를 장식하였다. 기독교는 교육의 선구자였고, 신교육을 실시하는 모태였다.⁶²⁾ 그러나 근대는 일반교육의 발달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육은 날로 낙후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가정, 교회,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교육이 연결되는 통합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런 영역이 각기 별개의 교육형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통합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대교회는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응전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기독교적 대안제시와 직결되어야 한다.⁶³⁾

사회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교회는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가정을 포용하므로 신앙생활의 실제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중심'이라는 표어대로 가정생활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열심 있는 신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일에 몰두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연령층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영적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곳이다.⁶⁴⁾ 지역 교회들조차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중한 시간 부담으로 인하여 가정과 경쟁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⁶⁵⁾

문제는 교회와 가정을 보는 관점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교회와 가정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의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등한시하게 된다.

가정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교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교회는 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58) *Ibid.*

59) 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p. 83.

60) B. J. Walsh, *Christian World View*, 미간행 강의안(Toronto: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n. d.), 1.

61)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대구: 기독교 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pp. 23-24.

62) 정정숙, *한국기독교 여성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1), pp. 127ff.

63)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p. 420.

64) 찰스 셀, *가정사역*, 양은순·송헌복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 102.

65) *Ibid.*, p. 103.

서로의 역할과 방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⁶⁶⁾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 구성원의 영적 강화(spiritual strengthening), 정보 제공과 상담(information and counseling), 그리고 생활 패턴의 제공(patterns for living)이다.⁶⁷⁾ 이것은 모리스 인치(Morris A. Inch)의 표현처럼 ‘교회-가정 협동교육’(church-home educational cooperation)이다.

‘교회-가정 협동교육’은 교회와 가정의 양쪽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 상호협력을 통하여 사역의 바탕이 확장되고 교육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다. 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회의 교육자원을 가정이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가정을 통한 ‘생활 신앙’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며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는 기본 도식을 제공한다. 찰스 셀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가정과 교회는 몇 가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질서와 책임’의 특성을 가지며, 둘째, ‘사랑’의 특성, 셋째,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⁶⁸⁾

이러한 바탕을 통하여 ‘기독교 주간 학교’의 설립과 ‘방과후 학교’ 및 ‘기독교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독교 주간 학교(Christian Day School)는 우리들이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미 미국에서 실시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이 운동은⁶⁹⁾ 한국 교회에서도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 되고 있다.⁷⁰⁾ 교회(혹은 크리스천 부모들, 혹은 교사들)가 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바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⁷¹⁾

이것은 대안학교(代案學校) 형태로 자리 잡아 가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집약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들이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제도가 있다. 이것은 교회의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3. 크리스천 교사 양성을 위한 투자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자극을 주며, 격려하고, 진리를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이다.⁷²⁾ 참된 가르침의 목적은 진리가 학생들의 삶에 적용되어 그리스도께 봉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이란 학습과정의 통합적 부분이며,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⁷³⁾

크리스천 교사란 성도들의 믿음을 영속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⁷⁴⁾ 기독교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신앙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진리의 총체적 표현이다.⁷⁵⁾

하나님은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 갈급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세우셨다. 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졌고, 이것을 바로 활용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마28:20, 딤후 2:2, 신6:7).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은 귀하고 거룩한 소명이다.⁷⁶⁾ 이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66) Donard A. Maynard, *Your Home Can Be Christian* (New York: Abingdon Press, 1952), p. 131.

67) 방현덕, *기독교 가정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1985), p. 275.

68) 찰스 셀, *op. cit.*, pp. 106-109.

69) 기독교 주간 학교 운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는 Norman E. Harper, *Making Disciples: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Memphis :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pp. 58-88을 참조하라.

70) 한국에서는 거창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 수원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등이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71)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의 개정 등이 있어야겠지만 소규모 특성화 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본다.

72) Norman E. Harper, *op. cit.*, p. 124.

73) *Ibid.*

74) Gilbert A. Peterson, "The Christian Teacher",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ed. Werner C. Graendorf, (Chicago : Moody Press, 1981), p. 80.

75) *Ibid.*

76) Norman E. Harper, *op. cit.*, p. 125.

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며 영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존귀한 사명이다.⁷⁷⁾

크리스천 교사는 타인의 삶 속에 자기의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헌신적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와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헌신자의 특권이며 축복이다(딤후 2:2).

교사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몸소 교사로 모범을 보이셨던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크리스천 교사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⁷⁸⁾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크리스천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학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투자가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단순한 직업인 양성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역할 감당자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오늘의 한국 기독교 교육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정체성의 혼돈이라는 위기로 나타나는데, 성경적 기독교 신앙보다 세속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영향으로 인한 신앙적 혼돈에서 온 것이다. 일부 교회들이 성공 혹은 성장 지향적 목회 형태를 추구하고, 이것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경향으로 정착되어졌다. 여기서 기독교 교육은 소외되었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축소되어졌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돌파를 위한 몸부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운동⁷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기독교 학교 운동⁸⁰⁾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바른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의 정립부터 도모해야 하고, 이것을 사람의 각 영역에 적용케 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력을 통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77) Werner C. Graendorf, *op. cit.*, p. 81.

78) Norman E. Harper, *op. cit.*, pp. 127ff.

79) 여기에 대해서는 David B. Cummings, ed., *The Purpose of A Christ-Centered Educatio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9)를 참조하라.

80) Cf. David B. Cummings, ed., *The Basis for A Christian School*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2).

- 1) Howard Hendricks, in Foreword to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by Roy B. Zuck, rev. ed. (Chicago: Moody Press, 1972), p. 4.
- 2) 정정숙, 『기독교 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0), p. 20.
- 3)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p. 11.
- 4) Paul H. Vieth, *The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St. Louis: Bethany Press, 1947), p. 44.
- 5) Frank E. Gaebelein, *Christian Education in a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p. 13.
- 6) Paul H. Vieth, *op.cit.*, p. 52.
- 7) 기독교 교육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교육, 교회 교육, 교회학교 교육, 교리문답 교육, 기독교 종교 교육, 기독교 교육 등으로 불려 왔다.
- 8) 정정숙, *op.cit.*, pp. 23 ~ 24.
- 9) *Ibid.*, p. 34.
- 10) *Ibid.*
- 11) Frank E. Gaebelein, "Review of Current Religious Thought", *Christian Today* IV(November 9, 1959), p. 43.
- 12) Frank E. Gaebelein, *Christian Education in a Democracy, op. cit.*, p. 86.
- 13) C. C. Morrison, "The Inner Citadel of Democracy", *The Christian Century*, LVIII(May 4, 1941), p. 652.
- 14) 철학적 입장들이 명시적(明示的)으로나 제안적으로 교육원리를 형성해 왔다.
- 15) 목적지향적 과정으로서의 교육 행위는 세계관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R. C. Peters는 교육의 세 가지 준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①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의 전달을 내포한다. ②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어떤 행위의 인지적 측면을 내포한다. ③ 교육은 피교육자의 의지와 자발성을 무시한 전달방식을 배제한다. Cf. R. C. Peters,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tlen and Unwin, 1965), p. 45.
- 16) 이들은 기독교적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무시한 데서 생겨난 것이다.
- 17) Edwin H. Rian, *Christian and American Education* (St. Antonio : Baylor Co., 1949), p. 235.
- 18) Herbert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Milford : Mott Media Press, 1981), pp. 176-177.
- 19) Cf. Norman E. Harper, *Making Disciples : The Challenge of the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Memphis :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 20)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p. 19.
- 21) Arnold Toynbee, *Study of Hist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p. 18.
- 22) *Ibid.*
- 23) 말 고치 편, 『포스트모던 시대 속의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 문석호 역, (화성: 신앙과 지성, 2001), p. 234.
- 24) 신국원, *op. cit.*, p. 112.
- 25) *Ibid.*, pp. 117-123. 또 마크 놀·데이비드 웰즈 편, 『포스트모던 세계에서의 신학과 신앙』, 이승구 역(서울: 엠마오, 1994)을 참조하라. 전광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을 첫째, 해체주의, 둘째, 비합리주의 내지 탈합리주의, 셋째, 상대성 혹은 다양성, 넷째, 탈인간중심주의 내지 주체의 상실, 다섯째, 탈정치화와 탈역사화로 규정하였다. 전광식,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1998), pp. 93-100.
- 26) 김남식, "이혼의 사회적 현상과 그 대응", 상담과 선교, 제6권 4집, 1998년 겨울호, p. 43.
- 27) *Ibid.*, p. 45.
- 28) 정정숙, "이혼의 위기 상담", 상담과 선교, 제6권 4집, 1998년 겨울호, p. 60.
- 29) 박원희, "결손가정 학생의 성격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9.
- 30) 안환균, 『르포.기독교 문화가 위태롭다』 (서울: 규장, 1999), p. 147.
- 31) 공주교육대 구정화 교수 정리 자료를 *Ibid.*, p. 149에서 재인용.
- 32) Jaque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tr. John Wilkinson (New York : Vantage Books, 1964), p. 35.

- 33) 이성호,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 문이당, 1995), p. 69.
- 34) 정정숙, *op. cit.*, pp. 74ff.
- 35) *Ibid.*, p. 78.
- 36) 문화에도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국원, “대중문화의 현실과 대안”,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pp. 71ff를 참조하라.
- 37) 정정숙, 『기독교 교육학』, *op. cit.*, pp. 63ff.
- 38) Werner Graendorf 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81), p. 13.
- 39) Sara Little, *The Role of the Bible in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John Knox, 1961), p. 175.
- 40) Carl F. H. Henry, “Restoring the Whole Word”, in *The Religious Education We Need*, ed. James M. Lee (Mishawaka, IN: Religious Education, 1977), p. 65.
- 41)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William Barclay, *Educational Israel of the Ancient World* (Grand Rapids: Baker, 1974), 한글판은 유재덕 역, 『고대 세계의 교육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Lewis Joseph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53), 한글판은 이숙종 역, 『기독교 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44) 등이 있다.
- 42)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Willem A. Van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8)을 참조하라.
- 43) Elmer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Grand Rapids: Baker, 1975), p. 16.
- 44) Clifford A. Willson, *Jesus the Master Teacher* (Grand Rapids: Baker, 1974), p. 23.
- 45) J. M. Price, *Jesus the Teacher* (Nashville: Broadman, 1956), p. 3.
- 46) Paul H. Vieth, *The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St. Louis: Bethany, 1947), p. 44.
- 47) *Ibid.*
- 48) 이러한 가정적 중생(presumptive regeneration)개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잉태한 마리아가 올 때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쁨으로 뛰어 논 세례요한을 인용한다(눅 1:15, 41, 44). 그러나 이 인용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인용이 되지 못한다. 가정적 중생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예는 Lewis B. Shenck, *The Presbyterian Doctrine of Children in the Covena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0)이다.
- 49) Norman E. Haper, *op. cit.*, p. 42.
- 50) *Ibid.*, p. 46.
- 51) 문화사명과 변혁주의 문화론에 대해서는 김남식, 기독교에서 본 문화(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72)를 참조하라.
- 52) 프랭크 E. 게이블라이엔, “기독교 교육철학”, 기독교 교육학개론, J. 에드워드 헤익스 편, 정정숙 역(서울: 성광문화사, 1979), p. 45.
- 53) C. B. 이비,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목표”, *Ibid.*, p. 62.
- 54) 프랭크 E. 게이블라이엔, “기독교 교육철학”, *Ibid.*, pp. 55-58.
- 55) Norman E. Harper, *op. cit.*, pp. 127-134.
- 56) 프랭크 E. 게이블라이엔, *op. cit.*, p. 58.
- 57) W. Warren Wager, *World View : A Study of Comparative History* (New York : The Dryden Press, 1977), p. 5. 세계관이란, ‘철학’과 구별되며, ‘삶에 관한 관점’ 또는 ‘신앙고백적 비전’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 틀”이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 ‘사물들’이란 단어이며, 둘째로 ‘신념’, 셋째로 ‘기본적’, 넷째로 ‘틀’(framework)이란 개념들이다.
- 58) *Ibid.*
- 59) 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p. 83.
- 60) B. J. Walsh, *Christian World View*, 미간행 강의안(Toronto :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n. d.), 1.

- 61)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대구 : 기독교 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pp. 23-24.
- 62) 정정숙, 한국기독교 여성교육사 (서울 : 도서출판 베다니, 2001), pp. 127ff.
- 63)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 도서출판 베다니, 1994), p. 420.
- 64) 찰스 셀, 가정사역, 양은순·송현복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 102.
- 65) *Ibid.*, p. 103.
- 66) Donard A. Maynard, *Your Home Can Be Christian* (New York: Abingdon Press, 1952), p. 131.
- 67) 방현덕, 기독교 가정교육론 (서울: 바울서신사, 1985), p. 275.
- 68) 찰스 셀, *op. cit.*, pp. 106-109.
- 69) 기독교 주간 학교 운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는 Norman E. Harper, *Making Disciples: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Memphis :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pp. 58-88을 참조하라.
- 70) 한국에서는 거창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 수원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등이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 71)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의 개정 등이 있어야겠지만 소규모 특성화 학교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본다.
- 72) Norman E. Harper, *op. cit.*, p. 124.
- 73) *Ibid.*
- 74) Gilbert A. Peterson, "The Christian Teacher",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 ed. Werner C. Graendorf, (Chicago : Moody Press, 1981), p. 80.
- 75) *Ibid.*
- 76) Norman E. Harper, *op. cit.*, p. 125.
- 77) Werner C. Graendorf, *op. cit.*, p. 81.
- 78) Norman E. Harper, *op. cit.*, pp. 127ff.
- 79) 여기에 대해서는 David B. Cummings, ed., *The Purpose of A Christ-Centered Educatio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9)를 참조하라.
- 80) Cf. David B. Cummings, ed., *The Basis for A Christian School*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2).